

사회

광주, 학교폭력 10곳중 4곳 발생

경찰 100일 단속... 서클 28개 해체·카페 961곳 폐쇄

올해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100일간 광주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4곳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건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교실이나 운동장, 화장실, 복도 등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단속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사건은 289건이 발생, 가해학생 783명 중 168명은 선도하고 38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을 구속했다. 일진 등 폭력서클은 28개가 적발됐으며, 인터넷 카페도 961곳을 폐쇄 조치했다.

광주지역 306개 학교 중 40.8%인 125곳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12곳(8.0%), 중학교 69곳(79.3%), 고등학교 44곳(62.8%) 등등으로 특히 중학교의 비율이 높았다. 가해학생 783명 중 685명은 광주지역 125개교 재학·중퇴학생이었으며, 나머지 98명은 타 지역이나 소년원 학생이었다.

광주지역 중학교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S중과 M중으로 각각 26명이었으며 D중(22명), C중(17명), I중(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는 S고(31명), J고(23명), G고(21명), S여고(17명), G공고

(15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하교 이후, 휴일, 쉬는 시간 등에 교내·외에서 피해학생들을 괴롭혔으며, 가해방법은 폭행·상해(355명, 45.3%)와 금품 등 갈취(316명, 4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폭력(32명)이나 심부름 시키기(8명), 집단 따돌림(6명) 등도 있었다. 가해학생 중 77.1%(604명)의 가해 기간은 3개월 이하였지만 3~6개월 9.6%(71명), 6개월~1년 7.4%(58명), 1년 이상 6.4%(50명) 등 3개월 이상 장기기간도 22.9%나 됐다.

가해동기는 '돈이 필요해서'(335명), '갑정이 상해서'(189명), '장난

삼아'(57명), '이유 없이'(56명) 등의 순이었다. 가해학생 중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84.1%(659명)였으나 편부(44명)나 편모(42명), 조손 가정(15명) 등 결손가정인 가해학생도 12.9%로 분석돼 이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은 가해학생 및 가해가 우려되는 학생 902명을 대상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이 54명, 중위험군이 165명으로 분류돼 이들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해 드려요

21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송일고등학교에서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찍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속도내는 '의문의 26억 상품권' 수사

檢, 광주시·백화점 관련자료 요구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기간 의문의 상품권 26억원 구매'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광주시와 해당 상품권을 판매한 광주 모 백화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박 전 시장을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상품권 구매에 관여한 광주시 직원 이모(47)씨와 이씨의 형을 불러 광주시 법인카드를 상품권을 구매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이 백화점 측에 광주시가 2004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구매한 10만원권 상품권 2만6000여장의 일련번호를 건네받아 현금과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일련번호를 추적할 경우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이를 통해 상품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건네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시장은 물론 각 실·국·과의 업무추진비로 26억여원에 이르는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화점과 광주시 등이 '상품권 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송의 주요 쟁점 등을 지켜보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동생 자살 방조 누나 집유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최근 남동생에게 독극물을 구입해 주는 등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보보 3월 13일자 6면)로 기소된 윤모(여·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살의사를 표시한 동생에게 독극물을 구입해 주고 흥기로 자해하는데도 적극 가담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윤씨가 부모 없이 동생과 거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

시했다.

윤씨는 지난 3월11일 새벽 3시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빌라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동생(19)이 흥기로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돕고 독극물을 마시고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동생이 5개월 전 후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은 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함께 거주하는 자신과 할머니에게 자주 폭력을 휘두르자 독극물을 구입해 주는 등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폭행하자 앙심... 허위 경력 들통에...

외국인선원, 잇단 흥기 난동

해경, 미안미출신 들 조사

여수해양경찰은 21일 광양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한국인 동료 선원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미안미 출신의 선원 A(27)씨를 살인미수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50분경 광양항에 정박 중인 파나마선적 화물선 S호(2086t) 갑판 위에서 한국인 선원 김모(66)씨를 흥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다가 이 유류 폭행한 한국인 선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흥기로 살해하려다 동료 선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A씨가 찌른 칼날을 손으로

잡고 버티던 중 동료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완도해양경찰도 이날 항해 중인 선박 중인 화물선에서 한국인 동료 선원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미안미 출신의 선원 A(27)씨를 살인미수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B씨는 지난 18일 밤 9시30분경 완도군 보길도 남쪽 2마일 해상에서 선장 이모(59)씨 등 선원 3명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조리장 경력을 숙이고 배를 탄 것이 탄로 나자 배에서 내리면 가족 부양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팔마대교서 차량 추락

21일 새벽 5시33분께 순천시 풍덕동 팔마대교에서 박모(56)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이 10m 아래 동천으로 추락해 박씨가 숨졌다. 이날 박씨는 동천사거리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달리던 중 팔마대교 난간을 뚫고 천변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운전 부주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찾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위력 금급해서 상가에 새총 발사

○...도둑고양이를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새총의 위력이 궁금한 나머지 상가 건물 유리벽에 유리구슬을 쏘 구멍을 뚫은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30분경 남구 봉선동 임모(54)씨의 휴대폰 판매점에 새총을 발사해 100만원 상당의 풍유리벽에 구멍을 뚫은 등 모두 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유리벽에 뚫린 구멍이 총알 구멍처럼 보여 총기사고로 신고했다"며 "김씨 때문에 경찰 수습병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귀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0억대 외국 '짜퐁' 가방 판매업자 3명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외국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판매업자 3명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지수입한 유명 유산상표(일명 '짜퐁') 가방, 지갑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 인터넷 등에서 사들여 광주지역의 한 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해경은 서씨의 매장, 창고 등에서 짜퐁 가방, 지갑 등 1000여점(정품 가격 기준 10억원)을 압수했다.

/서취재본부=김경민기자 dss6116@

3조5000억 대 단계 사기 조희팔씨 작년 중서 사망

3조5000억원대 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55)씨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이 21일 전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지난해 12월18일 밤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K씨 등과 청도(靑島)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급체를 호소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53세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어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엔타이(煙台)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필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가정에서 준비 할 건강 필수 도서

어버이날 선물·직장·노인정·복지관·학교

1 18,000원



2 12,900원



3 12,000원



4 15,000원



5 15,000원



6 15,000원



7 12,000원



8 12,000원



9 12,000원



10 12,000원



11 15,000원



12 13권 15,000원/2권 14,000원



※천금출판사 (책 만들어 드립니다) 1~12 함께 194,900원

건강에 좋은 도서 보금돈의

천금건강 주문 문의 ☎ 053)746-7733, 746-7734 / Fax 053)746-7735
010-5050-7333 / 신한은행 : 110-314-278685 임보미